

노회채와 한글 한글을 사랑한 정치인



노회찬과 한글

1판 1쇄 2020년 10월 9일

본 도서는 노회찬체가 쓰인 첫 번째 책입니다.
574돌 한글날을 맞이하여 이 책을 펴냅니다.

워은이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 노회찬재단
기획 및 제작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 노회찬재단

펴낸이 조현연

편집, 디자인 이성재

노회찬체 개발 박윤정&타이포랩(<http://www.typolab.co.kr/>)

재단법인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 노회찬재단

04146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101동 1501호

전화 02-713-0831

이메일 omychans@naver.com

홈페이지 <http://hcroh.org>

©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 노회찬재단 2020

본 도서는 비매품입니다.

한글을 사랑한 정치인

노회찬과 한글

노회찬재단 엮음

목차

- 06 <노회찬과 한글>을 펴내며 조현연(노회찬재단 특임이사)
- 09 노회찬과 국어사전
- 15 국회의원 노회찬 — 或(혹) 대신 國(국)으로
- 23 노회찬의 한글 국회 만들기
- 43 국보 1호를 훈민정음해례본으로
- 53 노회찬을 떠나보낸 뒤
- 57 노회찬체가 만들어지기까지 인터뷰 - 박윤정(박윤정&타이포랩)

부록 도종환 신임 문체부 장관과의 만남

부록 노회찬 한글활동 일지

부록 클라우드 펀딩(텀블벅) 후원자 목록

〈노회찬과 한글〉을 펴내며

조현연, 노회찬재단 특임이사

누구보다 우리말과 한글 사랑이 특별했던 정치인.

언뜻 당연한 것 같지만, 그러나 당연하지 않았던 대한민국 국회.
의원 배지와 선서문에 적힌, 권위의 상징과 같았던 한자를
한글로 바꾼 사람. 딱딱한 정장 대신, 한글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해맑게 웃던 사람.

노-회-찬.

생각할수록 반갑고 고맙고 그래서 몽클하기도 합니다.
그 행동 하나 하나에는 한글, 나아가 국민에 대한
애정이 스며있기 때문입니다.

574돌 한글날을 맞아 펴내는 〈노회찬과 한글〉에는
그러한 기록의 조각이 고이 담겨있습니다.

그런데 원고를 정리하며 다시금 옛 기억들을 들춰보니
못내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의 활동을 지켜보고 기뻐했음에도
그런 관심과 애정의 시작이 언제 어디서부터였는지, 끝내
묻지 못했던 탓입니다. 이제는 그 대답을 영영
구할 길이 없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같은 마음으로 그리워하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
그로 인해 이 책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는 것에
아쉬움을 덜어 봅니다. 그리고 더 없는 소중함과 감사함을 전합니다.

책장을 넘기며 위안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노회찬과 국회의원

노회찬 트위터, 2012년 1월 17일

이대근 논설고문, 「[여적]노회찬, 떠나다」

이인우, 음식天國 노회찬 (2)옛날통인감자탕집에서

박래군, 「희망은 종유석을 키우는 마음으로」

노회찬과 국어사전

‘촌철살인’의 정치인. 많은 분들께서 그를 기억하며 떠올리는 첫 번째 단어입니다. 답답했던 국민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었던 그의 말 한마디. 그 기원에 대해 엿볼 수 있는 기록들을 전합니다.

노회찬 트위터, 2012년 1월 17일

1938년 최초의 사전으로 발간된 문세영 선생의 <우리말사전>을 올렸더니 외손자 @Jwon1yu께서 연락왔네요. 어릴 때 자주 베고 잤습니다. 책내용이 머리에 그대로 들어올까봐.

.....

이대근 논설고문, 「[여적]노회찬, 떠나다」

경향신문, 2018년 7월 28일

요즘 국어사전을 펼쳐보는 이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인터넷 시대라서 그렇기도 하고, 영어 아닌 한국어에 관심을 가질 이유도 별로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매일 국어사전을 읽는 사람이 있다. 아니, 있었다. 오래전부터 국어대사전을 탐독해왔다는 그는 읽을수록 한국어의 깊이에 빠졌다고 했다. 그는 간혹 술을 먹고 늦게 귀가하는 경우에도 국어사전만은 꼭 읽고 잠들었다.

시인도, 소설가도 아닌, 이 특이한 정치인의 이야기를 들은 게 벌써 몇 년 전이다. 세상 사람들은 노회찬의 촛철살인·유머가 그저 타고난 재능이겠거니 했다. 그가 한국어를 얼마나 갈고닦았는지는 모르고 있다. 보통 정치인과 달리 그가 정확한 용어와 단어로 상황을 정의하고, 적절한 분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어에 대한 오랜 집착의 결과이다.

나쁜 정치로 한국어를 망치는 정치인은 많지만, 노회찬처럼 우아한 한국어로 좋은 정치를 추구한 정치인은 드물다.

그런데 그마저 떠났다. 자신의 말을 지키느라, 기꺼이 목숨을 내준 것이다. 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정치조직을 위해 쓰려고 아껴둔,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한 민주주의’라는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떠난 그가 밋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7일 영결식에서 “약자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민주주의 가능성 하나를 상실했다”고 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너무 많은 희생을 치렀다는 것을 깨달을까/ 친구여, 그 대답은 바람만이 알고 있네.”

노회찬이 떠나는 날 밥 딜런이 왔다. 평화와 자유를 노래해왔던 밥 딜런의 서울 공연이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고군분투하다 스러진 영혼을 위로해줬으면 좋겠다.

시민들은 그동안 외면하던 진보정치의 중요성을 새삼 인식하고 있다. 심상정도 “당신을 잃은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고 했다. 언젠가 진보정치가 꽃피는 날 진보정치 깃발을 맨 먼저 들었던 노회찬을 세상 사람들은 기억해줄까? 영화 <동사서독>에서 장만옥은 무림의 고수가 되기 위해 고향을 떠난 장국영을 그리며 말한다.

“내가 가장 아름다운 시절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름다운 시절이 와도 그와 함께하지는 못한다.
노회찬의 부재는 상실이자 고통이다.

.....

이인우, 「노회찬 “진짜 감자탕을 알려주겠다”:

음식天國 노회찬 (2)옛날통인감자탕집에서」

〈프레시안〉, 2020년 1월 25일

... 회찬이는 “마이크 체질의” 성우를 한 수 “지도”한다.

“감자탕은 말이야, 감자가 들어가서 감자탕이 아냐. 돼지 등뼈
(또는 등뼈 속의 척수) 부위 이름이 ‘감자’야. 그래서 감자탕이야.”

노회찬은 박학한 독서인이자 행동가였다. 고 정운영 선생이
노회찬을 인터뷰한 <우리시대 진보의 파수꾼 노회찬>에 친구 정광필
(전 이우학교 교장)이 학창 시절의 노회찬을 회고한 부분이 있다.

“뛰어난 유머 감각, 엄청난 주량, 어느 분야든 두루 꿰는
잡학다식으로 모든 사건 사고의 중심에 그가 있었다.”

하지만 타고난 재능만 믿지는 않았다. 박규님(노회찬재단 운영실장)은
“언젠가 노 의원님이 무슨 이야기 끝에 국어사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섯 번이나 정독한 경험을 들려주기도 했다”고 기억한다.

.....

박래군, <박래군의 사람살이>

「희망은 종유석을 키우는 마음으로」

인권재단 사람, 2019년 7월 26일

노회찬 의원 1주기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지난 20일 열린 1주기 추모문화제 자리에 앉아 영상으로 나오는 그의 모습을 보고 있으려니 그의 출판기념회 같은 행사에 와있는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전화를 걸면 통화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그는 어떤 상황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 줄 것만 같았습니다. 휴대폰에 있는 그의 전화번호를 지우다가 못내 아쉬워 수첩에 옮겨 적었습니다. 그가 저세상 사람이라는 게 아직도 실감 나지가 않아서일 겁니다.

올 초에 나온 그의 책을 주말 동안 읽었습니다.

바쁜 의정 활동 중에도 진심을 담아 적은 글들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는 부지런히 공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이 들수록 공부할 게 많다며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인상적인 건 국어사전을 탐독했다는 겁니다.

그의 촌철살인은 국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바탕을 이루어서 가능했습니다. 그는 조선왕조실록을 모두 읽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대한 깊이 있는 논평이 가능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덕목은 그가 끊임없이 낮은 곳으로 가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그의 마음가짐은 6411번 버스 연설로 표현되었습니다.

새벽 4시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미화원들, ‘투명인간’으로 사는 이들의 손에 닿을 수 있는 진보 정당을 만들자는 호소가 지금도 마음을 울립니다. (후략)

국회의원 노회찬 - ‘혹’ 대신 ‘국’으로

10월 9일 한글날과 노회찬의 ‘한글 넥타이’

노회찬의 한글 사랑, <한글을 빛낸 큰별> 감사패를 받다

이건범(한글문화연대 대표), 「한글 사랑꾼 노회찬」

“김선옥 법제처장님, 이 10개의 법률 낱말을 아십니까?”

국회의원 노회찬

— 或(혹) 씨신 國(국)으로

국회의사당에 첫걸음을 내디뎠던 그 순간부터, 이미 “국회의원 노회찬”의 마음속에는 ‘한글’의 가치가 가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당연하게 여겨왔기에 넘겨왔던 일들. 이제 노회찬의 시선으로 국회를 바라봅니다.

“민위의 전당이라는 국회는 여전히 나라 ‘국’자인지 ‘혹’자인지 모를 한자를 쓰고 있습니다. … 한글은 우리 민족의 자랑스런 문자입니다.”
(2012년 7월 19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노회찬)

10월 9일 한글날과 노회찬의 ‘한글 넥타이’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과 함께 우리나라 5대 국경일의 하나인 한글날은 훈민정음 곧 오늘의 한글을 창제해서 세상에 펴낸 것을 기념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한 날입니다.

1926년에 음력 9월 29일(양력 11월 4일)로 지정된 ‘가갸날’이 그 시초이며 이후 주시경 선생이 이름 붙인 ‘한글’이 알려지면서 차차 ‘한글날’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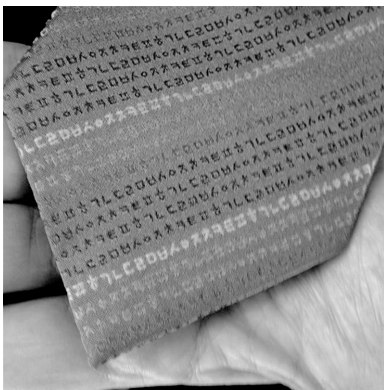
한글날을 양력 10월 9일로 확정한 것은 1945년 해방이 되고 나서였습니다. 1940년 경북 안동에서 발견된 <훈민정음> 해례본 서문의 “정통 11년 9월 상한(正統 十一年 九月 上澣)”에 정인지가 썼다는

기록이 그 근거가 되었습니다. 1446년 9월 상순의 마지막 날인 음력 9월 10일을 그레고리력으로 계산하면 10월 9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글날은 1949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 당시 공휴일로 지정됐다가 1990년에 들어서면서 2012년까지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당시 노태우 정부는 “노는 날이 많아서 노동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경제적인 이유로 한글날을 ‘국군의 날’과 함께 제외한 것입니다.

한글날이 그 대상이 된 이유는, 문화는 경제 성장의 희생양이 되어도 좋다는 정도의 인식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각계각층에서 한글 창제의 중요성을 점차 인정받으면서, 그리고 적절한 휴식과 여가는 오히려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가 힘을 얻게 됩니다. 2012년 11월 1일 국회에서 ‘한글날 공휴일 지정 촉구 결의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채택(재석 197명, 찬성 189명)되었고, 12월 24일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한글날이 23년만에 다시 공휴일이 된 것입니다. 연말에 통과됐기 때문에, 대다수의 2013년 달력에는 10월 9일이 검정색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2012년 11월 7일 노회찬은 트위터를 통해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기념으로 한글 넥타이 매고 나왔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곤 한글넥타이를 매고 나온 이유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한글일 공휴일 지정을 반대한 것에 대한 항의의 표시”라고 밝힙니다.

11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글날 공휴일 지정촉구 결의안이 통과되자, 경총이 행정안전부에 “한글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경영계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일을 쉬어야 한다는 주장엔 동의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노회찬의 한글 사랑,

〈한글을 빛낸 큰별〉 감사패를 받다

2004년 국회 등원 첫날. 바로 첫째 날부터 ‘한글 사랑꾼’ 노회찬의 면모를 드러낸 일화가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초선의원 노회찬은 국회 본청 현관 앞에서 타당 의원이 왜 국회의원 배지를 안 달았냐고 묻자 이렇게 답합니다.

“배지가 한문으로 돼 있어서 바꿔 달라고 했어요.

한자가 바깥에 게 안 보이기 때문에 의혹할 때 ‘혹’자가 되어 있어요. 의혹이 많은 집단이잖아요. 저희들은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 왔고, 그래서 그걸 한글로 ‘국’자로 바꿔줄 때까지 저는 안 달 겁니다.”

이런 이유로 배지를 착용을 하지 않았던 노회찬은 2004년 6월 30일 한글문화연대의 한글문화연대 이동우, 김영삼 운영위원과 한글사랑 대학생 동아리 학생들로부터 한글로 ‘국회’라고 쓴 배지 100개를 전달받아, 등원 한 달만에 처음으로 배지를 겁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한글이 새겨진 국회의원 배지를 단 것입니다.

▲ 2004년
한글문화연대와 한글사랑
대학생 동아리 학생들이
선물한 국회 한글 보람(배지)

(김영삼) 무엇보다 국회의원이 나서서 한글날 국경일 제정 등 우리 말과 글을 지켜야 합니다. 소중한 한글을 지키는 정책 입안에 적극 나서주시요.

(노회찬) 한글 보람을 달았으니 의혹이 아닌 민의를 수렴하는 기관의 구성원으로 보람찬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 의원을 포함해 뜻이 있는 의원들에게 나눠주고 착용을 권장하겠습니다.

.....

한글문화연대 이진범 대표는 당시를 이렇게 회고합니다.

(「한글 사랑꾼 노회찬」, 노회찬재단 소식지 <민들레> 7호, 2019.11.28.)

“내가 한글 사랑꾼 노회찬을 만난 건 2004년 6월 말이었다.

한자로 나라 국(國) 자를 무궁화 꽃잎 안에 혹(惑) 자가 들어가 있는 모양으로 도안한 국회의원 보람(배지)을 달지 않겠노라는 그의 당당한 패기가 보도된 뒤였다.

우리 한글문화연대 운영위원인 개그맨 겸 치과의사 김영삼 씨가 매우 재치 있는 생각을 해내었다. 한글로 ‘국’이라고 새긴 국회의원 보람을 만들어 노회찬 의원에게 달아주고 다른 의원들에게도 전달하자고 한 것. 그는 자기 돈을 들여 한글 보람을 주문하였고, 나를 비롯한 몇몇 운영위원과 함께 노회찬 의원을 찾아가 직접 그의 옷에 이 보람을 달아주었다.

그는 아주 반갑게 우리를 맞아주었고, 우리는 우리말과 한글을 짊어놓은 세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동료 의원들에게도 나눠주겠노라고 하여 우리는 그에게 나머지 보람을 모두 맡기고 왔다.

이것이 노회찬이 한글 사랑꾼으로서 대중 앞에 나선 첫 사건이리라.
그는 곧 기념일에 지나지 않던 한글날을 국경일로 승격시키고자
애썼고 그 뜻을 이루었다. 2012년에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는
국한문혼용인 국회의원 선서문을 한글전용으로 바꾸자고
강력히 주장하여 정치 언어를 한 걸음 더 국민 쪽으로 끌고 갔다.
국회의 회장과 보람에서도 마침내 한자 국(國)을 없애고 한글로
바꾸어놓았다. (…)

그는 헌법의 얼굴인 헌법 전문이 하나의 문장이라는 사실에
깊은 유감을 밝혔다. 젊은 시절 시국사범으로 구속되었을 때 공소장이
300쪽이 넘었는데, 그것이 일본식 관행대로 하나의 문장이었다는 것이다.

어느 민족에 비해도 손색없는 좋은 말과 고유의 글자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일본식 관행을 헌법에 남겨둔 것은 국민으로서
직무유기에 가깝다는 말을 이었다.

이 토론(「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의 목적과 방법」 2018.2.7.)에서 나오는
내용을 개헌뿐만 아니라 입법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하던
노회찬 의원. 국민 대다수가 알아듣지 못하는 ‘컨센서스’라는
쫄가리 영어를 섞어 “국민과의 컨센서스가 중요합니다.”라고 유식한 채
방송에서 열을 내는 정치인이 수두룩한 오늘날, 진정으로 그가 그림다.

그는 우리말 사랑꾼이었고, 한글 사랑꾼이었다.”

.....

“김선욱 법제처장님, 이 10개의 법률 낱말을 아십니까?”

2005년 10월 10일 17대 국회 법사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노회찬은 김선욱 법제처장에게 10개의 법률 낱말을 아는지 묻습니다.

김선욱 처장은 2개만 맞추었다고 합니다. 비록 갑자기 물은 것이었지만 법학교수 출신인 법제처장도 2개는 맞추고 나머지는 읽기는 했으나, 바로 설명은 못했다고 합니다.

노회찬이 그날 법제처장에게 물은 법률용어는 지금 우리 법률에서 쓰고 있는 말들로, “掌理, 索道, 蒙利, 轉囑, 呼唱, 決潰, 貯置, 委棄, 奔馬, 精勵” 등 10개의 한자말이었습니다. 이 낱말 열 개 가운데 ‘전축’과 ‘위기’는 국어사전에 없는 말이라고 합니다.

한 신문은 기사 제목으로 “국감서 한자 퀴즈, 법제처장 20점 받아”라고 뽑기도 했습니다(노회찬, 「법제처장 한자 실력은 얼마나 됩니까?」, <대자보>, 2005년 10월 12일).

노회찬이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일제 강점기의 법률문장을 그대로 베껴 쓰고 있는 우리 법률 문장을 읽기 쉽고 알아보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야 한다는 걸 말하려는 것이었습니다. 16대 국회 때부터 법제처가 그런 법률문장을 쉬운 말글로 바꾸려고 ‘법률 한글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국회에 냈으나, 진지하게 검토하지도 통과시키지도 않아 자동 폐기되었고, 17대 국회에 또 냈으나 여전히 답보상태였습니다.

깨끗하고 바른 우리말로 쓴 글보다 일제 한자말을 섞어 써야 권위가 있는 좋은 글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2006년 1월 19일 노회찬은 ‘한글날 국경일 제정 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장 전택부)의 ‘한글을 빛낸 큰별’ 감사패를 받습니다. 위원회는 감사패를 전달하며 “이 분은 겨레의 보배이자, 세계 으뜸 글자인 한글을 빛내고 후대에 물려주고자 온갖 정성을 다해 한글날 국경일 제정에 힘썼기에 이 보람을 드립니다”고 수상 사유를 밝혔습니다.

노회찬의 한글 국채 만들기

국회의의원 선서문을 한글로

국회기와 의원 배지의 한글화

‘2012 우리말 으뜸 사랑꾼’, 노회찬

문해한마당축제, 조금은 특별했던 축하

10년의 결실을 맺다

노회찬의 한글 국회 만들기

노동자의 벗인 줄로만 알았는데, 어쩌면 그는 ‘한글’의 벗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쁜 의정 활동 속에 그가 남긴 그 길을, 함께 따라가봅니다.

국회의의원 선서문을 한글로

19대 국회 개원일인 2012년 7월 2일(법정 개원일을 한 달 가까이 넘겨 늦장 개원) 노회찬은 국회의원 선서문의 절반가량이 한자로 돼 있다고 지적하며 국회 개원식 선서문의 전면 한글화 시정을 요구합니다.

“개원 첫날의 첫 서명을 하는 문서가 국어기본법의 정신을 위배하지 않는 문서이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의식으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선서가 모든 국민이 읽을 수 있는 자랑스런 우리 민족의 한글로 쓰여지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이하 공개서한 전문)

국회의장님께

제 19대 국회의장으로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긴급히 시정을 요청할 일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된 제 19대 국회 개원식에서 우리 국회의원들은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든 채 의장님의 선창에 따라 선서문을 낭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사무처 의사국에서 미리 보내온 선서문 양식에 따르면, 이 선서문은 전체 글자의 절반가량이 한자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저는 지금 국회사무처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서문이 “공공기관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는 국어기본법 제14조를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국회가 2005년에 자랑스럽게 제정한 국어기본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기관등의 공문서에서 불가피하게 한자를 쓰는 것은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거나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 반드시 괄호 안에 병기하는 방식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저는 제 19대 국회의원으로서 개원 첫날의 첫 서명을 하는 문서가 국어기본법의 정신을 위배하지 않는 문서이기를 바랍니다. 또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의식으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선서가 모든 국민이 읽을 수 있는 자랑스런 우리 민족의 한글로 쓰여지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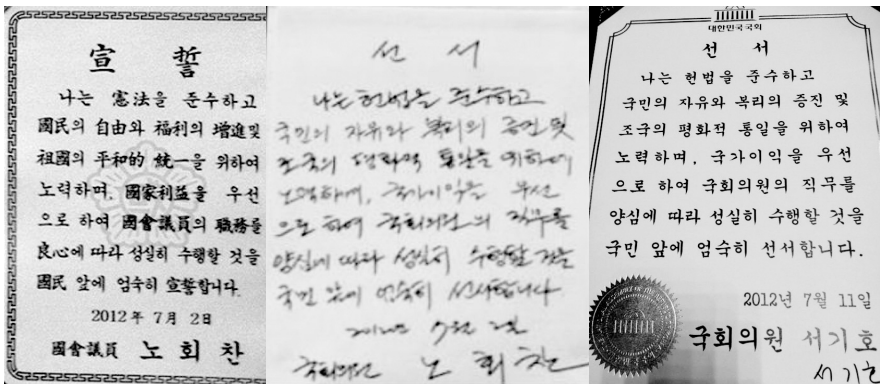
2012년 7월 2일

국회의원 노회찬 올림

9일 뒤인 7월 11일 노회찬의 트위터는 두 번에 걸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자투성이 국회의원 선서문을 한글로 바꿔 달라는 저의 요청을 국회가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의원 선서하는 서기호 의원이 한글로 선서하는 최초의 의원이 되었습니다.” “국회의원 선서문이 이제 한글로 바뀌었기 때문에 내용을 몰라 (선서를) 못 지켰다는 변명은 통할 수 없습니다.”

7월 11일 오후 2시 본회의. 통합진보당 서기호 의원은 앞서 사임한 윤금순 의원으로부터 의원직을 승계받아 본회의에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한글로 된 선서문을 낭독합니다. 서기호는 노회찬의 트위터에 “노 의원님 덕분에 영광입니다”라고 소감을 전합니다. 국회 관계자는 “그 동안 국회의원 선서문은 주요 단어를 한자로 썼지만 전면 한글화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 선서문은 한글로 제작 배부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랫동안 애써온 노회찬의 ‘한글국회 만들기’의 첫 작품이 성공한 것입니다. (4년 뒤인 2016년 6월 13일 20대 국회의원 선서문은 모두 한글로 제작되었습니다.)



▲ 2012년 7월 2일 노회찬 의원이 받은 한자 국회의원 선언문(왼쪽)과 그것을 한글로 직접 옮긴 선언문(가운데), 그로부터 9일 후인 7월 11일 서기호 의원이 받은 한글 국회의원 선언문(오른쪽). ©노회찬재단

국회기와 의원 배지의 한글화

‘국회의원 선서문’ 한글화에 이어 2012년 7월 19일 노회찬은 ‘한글 국회 만들기 2탄’으로 국회기와 의원배지의 한글화를 추진합니다.

국회기와 국회의원 배지에 적힌 한자 ‘國’자를 한글화하기 위해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노회찬은 “한글은 우리 민족의 자랑스런 문자”라며 “국어인 한글에 대한 존중과 국어기본법의 취지를 반영해 국회기와 국회의원 배지 등의 한글화를 추진하고자 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밝힙니다.

“이미 입법부를 제외한 사법부와 행정부는 한글로 된 표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는 여전히 나라 ‘국’자인지 ‘혹’자인지 모를 한자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나라 ‘국’자를 우리 이자스민 의원이 읽고 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국회가 대변하고자 하는 것은 한문을 잘 이해하는 국민만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한글만 이해하는 국민도 대변하고자 함인데,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다 알기 어려운 한자를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입니다. 대만에 계시는 분, 중국 본토에 계시는 분을 의식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국어기본법의 기본 취지와 정신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이하 기자회견 전문)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노회찬 의원입니다.

지난 2일 저는 국회 개원식 선서문의 절반 이상이 한자로 작

성되어 있는 것에 대해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서신을 보내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했습니다.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 규범에 맞춰 한글로 작성해야 하는 국어기본법 14조에 따라 선서문도 한글로 바뀌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강창희 의장님이 저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주 서기호 의원의 국회의원선서문부터 한글로 된 선서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한글로 만든 지 600년이 넘는데 이제 겨우 국회에서 선서문이 한글화 되었다는 것은 만사지탄할 일이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문자이며 우리 국회가 제정한 국어기본법 제14조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 규범에 맞춰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서 국회기 및 국회의원 배지 등에 들어가 있는 한문으로 되어있는 나라 국자를 한글인 국회로 바꾸는 ‘국회기및국회배지등에관한규칙 개정안’을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기 판넬을 보십시오.

이미 입법부를 제외한 사법부와 행정부는 한글로 된 표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는 여전히 나라 '국'자인지 '혹'자인지 모를 한자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나라 '국'자를 우리 이자스민 의원이 읽고 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국회가 대변하고자 하는 것은 한문을 잘 이해하는 국민만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한글만 이해하는 국민도 대변하고자 함인데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다 알기 어려운 한자를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입니다.

지금 국회 대정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장석을 보면 한문으로 ‘議長’이라고 씌어진 명패가 있습니다. 아마 그걸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초등학생 중학생이 얼마나 될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공문서에 자신의 이름을 한자로만 표기해달라고 신청한 분이 스무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제출한 모든 법안에는 그 분들의 이름은 한문으로만 표기하게 되어있습니다. 대만에 계시는 분, 중국 본토에 계시는 분을 의식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국어기본법의 기본 취지와 정신에도 어긋나다고 봅니다. 이제 의원선서문에 이어서 국회의원 배지, 국회기, 그리고 국회의장 자동차에 있는 문양까지를 규칙을 개정해서 한글로 바꾸는 노력을 시작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국회의원 제출하는 모든 법률에 명기되는 발의자 성명도 한글로 바꾸는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한글학회 등 한글과 관련된 여러 학술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한글 관련자들과 국회의장과의 만남을 주선해서 한글쓰기를 기피하는 국회를 바로잡는 것이 국회가 국민에게 다가서는 노력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고 국회의장과의 만남 등을 통해서 이번 개정규칙안이 신속히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국회의원 여러분의 동참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7월 19일

국회의원 노회찬



▲ 2012년 7월 19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 노회찬재단

2012년 7월 30일 오전 11시 한글단체 주요 대표자 7명(고경희 한글문화연대 대표, 김종택 한글학회 회장, 박종국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회장, 이대로 한말글문화협회 대표, 이수호 한글날공휴일추진국민연합 공동대표, 진용옥 한국어정보학회 회장, 차재경 국어사랑운동본부 회장)과 노회찬 의원은 국회에서의 전면적인 한글 사용을 건의하기 위해 강창희 국회의장을 면담했습니다.

김종택 한글학회 회장을 비롯한 7개 단체 대표자들은 “우선 국회의 보람(배지)부터 살펴보면 ○ 속에 든 ‘或’자는 창을 들고 싸우는 모습을 형상하고 있어 시각적으로도 불안하거니와 그 뜻이 ‘해매다’, ‘갈팡질팡하다’임을 알게 되면 그냥 둘 수 없는 부끄러운 표지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한글로 바꾸면 얼마나 멋스럽고 자랑스러웠습니까?”라는 내용이 담긴 청원서를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고 국어기본법 준수와 국회기 및 배지의 한글화를 요청했습니다.



▲ 국회기 및 국회배지의 한글화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노회찬 의원

7명의 한글단체 대표자들은 “국회 한글 사용을 위해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강창희 국회의장의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기념촬영 후 면담을 마무리했습니다.

청원서에 서명한 대표자들은 총 20명으로 한글 관련 단체 주요 대표자들을 모두 망라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회장 박종국, 한글문화단체모두모임 회장 이상보, 한말글문화협회 대표 이대로, 외솔회 회장 성낙수, 한글문화연대 대표 고경희, 한글날공휴일추진범 국민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수호, 국어문화운동본부 회장 남영신, 우리말바로쓰기모임 회장 김정섭,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공동대표 김경희, 전국국어운동대학생동문회 회장 이봉원, 짚신문학회 회장 오동춘, 한글문화연구회 이사장 박용수, 한글문화원 원장 송현, 한글빛내기모임 공동대표 고영희, 한글사랑운동본부 회장 차재경, 한글이름펴기모임 으뜸빛 밝한샘, 한글철학연구소 소장 김영환, 한류전략연구소 소장 신승일, 한말글연구회 회장 정재도, 한말글이름을

사랑하는사람들 으뜸빛 이알라, 한국어정보학회 회장 진용옥,
훈민정음연구소 소장 반재원, 광화문한글현판달기시민모임 대표 최규문)



▲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하는 노회찬 국회의원

면담을 마친 뒤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전면적인 한글 사용’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은 노회찬 의원이 취지를 설명한 뒤 이대로 한말글문화협회 회장을 진행자로서 소개하고 김종태 한글학회 회장이 발언을 하는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노회찬 의원은 그동안 국회 한글화를 진행한 경과와 이후 추진 방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습니다. (이하 발언 전문)

오늘 기자회견이 진행되기에 앞서 저희는 국회에서의 한글 사용을 건의하기 위해 강창희 국회의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방

금 청원문을 읽으신 한글학회 김종택 회장님, 박종국 세종대 왕 기념사업회 회장님, 한국어정보학회 진용옥 회장님, 한말글 문화협회 이대로 대표님, 국어사랑운동본부 차재경 회장님, 한글문화연대 고경희 대표님, 한글날공휴일추진국민연합 이수호 공동대표님도 함께 자리하셨고 기자회견도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한글단체 대표자들은 국회의원 선서를 60여 년만에 처음으로 국한문 혼용체에서 순 한글로 바꾼 강창희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아가 제가 추진 중인 국회의원 보람 즉 배지와 국회기, 그리고 국회의장 휘장 더 나아가서는 국회 내의 의장 명패, 의원 명패 등에 있어서 부끄럽게도 지금 헌법 기관 중 유일하게 국회만이 한글을 쓰지 않고 한자로 된 상징물들을 여전히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라는 기관의 성격에 비추어볼 때 우리 국민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결과적으로 주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글이 우리 민족 누구도 빠짐없이 생각하는 자랑스런 우리의 글이고 이것을 더욱 더 앞으로 많이 사용함으로써 우리의 글과 말을 빛나게 발전시켜야 하는 책무가 우리 스스로에게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강창희 국회의장께 시정 요청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다수의 국민들의 열망을 대변하는 한글 단체들과 함께 우리 국회에서 한글이 자랑스러운 글로서 생활 속에 뿌리내리기 하는데 앞장설 것이며 강창희 의장님께 재차 19대 국회에서 그동안 미뤄져 왔던 국회의원 배지 등 각종 상징물의 한자를 한글로 바꾸는 일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다짐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2012 우리말 으뜸 사랑꾼’, 노회찬

2012년 10월 6일 한글단체인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공동대표 김경희 박문희 이대로 허홍구)이 노회찬과 소설가 이외수, 서울시의회 김형태 교육위원, 시민 김동필, 열쉼의 한글빛내기모임 이영욱 운영위원, 출판사 <황소와 걸음> 등을 우리말을 가꾸고 빛내는 데 힘써 온 ‘우리말 사랑꾼’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곤 으뜸 사랑꾼으로 노회찬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분은 평소에도 우리 말글을 남달리 사랑하고 잘 못쓰는 것을 걱정하는 정치인입니다. 17대 국회 때는 한글날을 국경일로 만드는 데도 앞장을 서고, 일본 말투로 된 법률 문장을 쉬운 우리 말글로 바꾸는 일에도 힘썼습니다.

그런데 19대 국회가 등원하자마자 국회의원 선거가 한자혼용으로 된 것을 바로잡아서 앞으로 한글로 쓰게 되었습니다. 이 일에는 강창희 국회의장께서 협조해서 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회 회장과 깃발, 보람(배지)에 쓰인 國(국)자를 한글로 쓰자는 법안을 냈습니다.

입법부인 국회가 행정부인 정부나 사법부인 법원보다 우리 말글을 업신여긴다는 국민의 소리를 다시 듣지 않게 하려고 애쓰는 분이래 으뜸 지킴이로 뽑았습니다.”

문해한마당축제, 조금은 특별했던 축하

2012년 10월 9일 566돌 한글날을 기념해, 늦깎이로 한글 배우는 1천2백여명의 어르신들이 국회의원동산에 모였습니다.

전국문해성인기초교육협의회 소속 54개 풀뿌리시민사회단체 1천2백여명의

학습자들은 한글날을 맞아, 우리말과 우리글에 대한 참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열 번째를 맞는 만남과 성장의 전국문해한마당축제는 ‘늦깎이 청춘들’의 글쓰기대회와 시화전 등을 통해 그동안 갈고 닦아온 기량을 맘껏 뽐내는 행사를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이날 문해한마당 축제에는 공동주최한 노회찬 의원과 신기남 의원, 한글학회 관계자들도 참석하여 자리를 더욱 빛냈습니다.

이 행사를 함께 준비한 노회찬 의원은 “아직도 우리나라에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분들이 260만명, 15세 이상 초중학력 미취득자는 578만명이나 되는 부끄러운 현실 앞에서 몸둘 바를 모르겠다”며, “아름다운 우리 한글을 마음껏 읽고 쓰고 표현할 권리가 국민 모두에게 있는 만큼, 평생교육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여나가는 일에도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제10회 전국문해한마당축제

10/9(화) 오전 10시30분/오후 2시 국회의원동산

주최 및 주관: 전국문해교육협의회

후원: 국회의원 노회찬, 국회의원 신기남, 한글학회

한글날 기념식/글쓰기대회 시상식/축하공연 및 어울림한마당/
국회 및 방송국 견학

부대행사(의원동산) : 시화전 “늦깎이 청춘들의 시”



▲ 노회찬 의원의 축사 모습



(참조) 2012년 566돌 한글날 맞이 논평

“오늘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어 세상에 널리 알린 지 566돌이 되는 날이다. 배우기 쉽고 쓰기 편한 한글의 탄생에는 세종대왕이 백성과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한 ‘소통의 정치’가 담겨있어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오랫동안 문자를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해 온 기득권층의 반대를 무릅쓰고, 글을 모르는 백성들의 처지를 살펴 쉬운 한글을 만든 것은 세종대왕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과 결단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다.

한글날은 1949년 공휴일로 제정되었다가 1991년부터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쉬는 날이 너무 많아 노동생산성은 떨어지고, 기업과 경제에 큰 부담을 준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한글의 탁월한 문화적 가치와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 국민은 한글날이 언제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라는 사실이 문화관광부의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제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한글을 만들었던 세종의 정치철학을 복원시켜야 할 때다. 한글의 과학성과 가치에 대한 관심이 해외에서도 점점 높아지고 한국어 학습자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세계화 시대에 자랑스런 한글을 지키고 기리기 위해서라도 한글날은 공휴일로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한글날을 공휴일로 복원해야 한다는 법률안을 여야의원들이 뜻을 모아 발의한다고 한다. 적극 환영한다. 한글날이면 으레히 쏟아지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길 바란다. 한글날 공휴일 지정의 열쇠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다. 국무회의를 통해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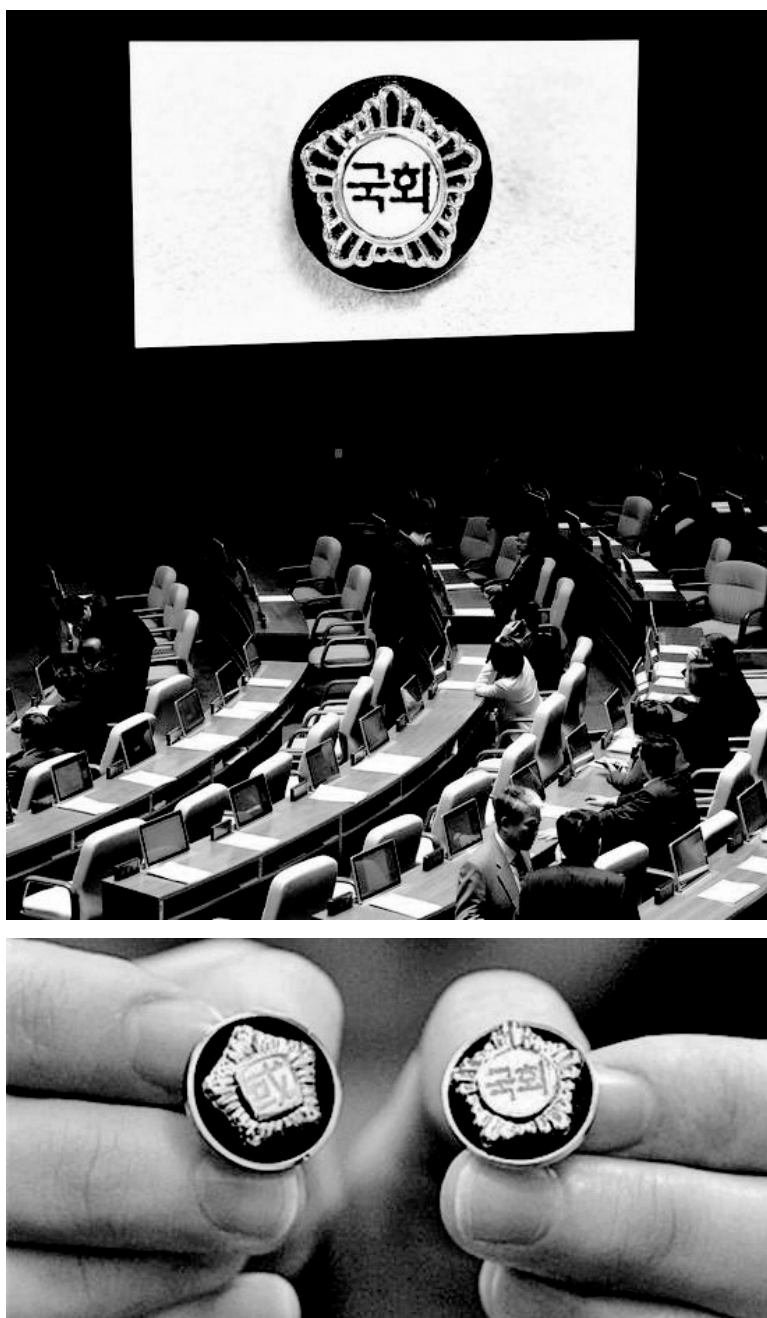
통령령으로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면 된다. 임기가 마무리 되기 전에 문화적인 치적을 남길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를 부디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국회의원들이 법률안을 발의하기 전에 한발 앞서 오늘 566돌 한글날 대통령이 결단할 의향은 없는가. 대다수의 국민들과 한글재단체에서 바라는 바 대로 한글날은 법정 공휴일로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2012년 10월 9일
국회의원 노회찬

10년의 결실을 맺다

2014년 5월 2일 대한민국 국회는 국회기와 배지 등에 있는 상징문양 한자 ‘國’ 도안을 한글 ‘국회’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국회기 및 국회배지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특히 그 형태는 노회찬 정의당 전의원이 2012년에 발의한 문양이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한글국회 만들기’를 위한 노회찬의 각고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노회찬은 “역사 속으로 한자 배지가 사라지기까지 한글 관련 단체의 각고의 노력이 있어서 가능했다. 특히 본인이 낸 ‘국회’ 문양이 그대로 채택돼 더 기쁘다. 새출발하는 마음으로 국민께 희망과 신뢰를 주는 새로운 국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한편, 한 지지자는 “하루빨리 한글 배지를 단 ‘국회의원 노회찬’을 국회에서 만나고 싶다”며 축하의 화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 노회찬 의원이 제안한 문양대로 한글로 바뀐 국회의원 한글배지(오른쪽)

이와 관련, <스포츠서울>의 고수정 기자(2014.4.10.)는 아래와 같이 적었습니다.

[SS현장] '2色 국회'...‘한글 사랑’ or ‘한자 사랑’

국회기와 의원 배지에 적힌 한자 '國'자가 한글 '국회'로 변경되는 이유는 '한글 주권'을 찾기 위해서다. 국회기와 배지에 표현된 '國'자가 '의혹'을 뜻하는 或(혹시 혹)자로 오인된다는 지적도 반영됐다. 이같은 주장은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가 2012년 7월 19일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론화됐다. 노 전 대표는 “국회의원 배지가 한글화될 때까지 배지를 달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후 박병석 국회부의장도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뜻을 같이했다.

국회기와 의원 배지에 ‘國’자를 쓰는 전통은 1950년 제1대 국회 때 시작됐다. 국회 문양은 제헌국회 이래 지금까지 총 9차례 바뀌었고, 지금 문양은 1993년부터 사용해왔다. 의원 배지에 한글이 들어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제5대 국회(1960~1961년) 참의원 배지와 제8대 국회(1971~1972년) 때도 배지에 한글 ‘국’자가 새겨졌다. 그러나 ‘국’을 거꾸로 하면 ‘논’이라고 보여 국회의원들이 놀고 있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한자로 재변경됐다.

이번에는 이러한 논란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라는 두 글자가 들어간다. 국회사무처가 지난 2월 12일부터 18일까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 의원 232명 가운데 72.4%(168명)가 한자 대신 한글에 찬성했다. 또 찬성 의원의 75.0%(126명)가 한글 ‘국’보다는 ‘국회’라는 문양이 낫다

고 답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은 8일 운영 위 전체회의에서 “문양을 한글로 바꾸는 문제는 간단해 보이나, 국회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논의만 이뤄진 사항이었다. 19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을 향하는 시점에서 여야의 원만한 타협으로 처리됐다”며 “새 출발을 하는 기분으로 국민께 더 희망과 믿음을 주는 새로운 국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2014년 568돌 한글날을 맞아 노회찬은 한글학회로부터 ‘한글나라 큰별’로 선정됩니다. 한글학회(회장 김종택)는 “의원님께서 평소 우리 말글문화 정립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오셨고 우리글이 잘못 쓰여지는 것을 걱정하는 정치인이다. 특히 19대 국회의원이 되어서 국회의원 배지와 회장을 한글로 바꾸는 데 온 힘을 다해 앞장서 오셨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보 1호를
훈민정음해례본으로

20대 국회 1호 청원

“훈민정음 국보 1호 지정을 청원합니다.”

국보 1호를 훈민정음해례본으로

그저 그렇게 존재하고 있었기에 당연하다 여기는 태도 대신, 주어진 가치를
올곧이 세우고자 했던 노회찬. 1호 청원의 의미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20대 국회 1호 청원

2016년 6월 2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한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현재 국보 1호인 송례문은
과거 일제강점기 당시 총독부에서 정해진 것으로, 국민들의 민의가
수렴되지 않았다. 또 최근 송례문이 불타서 사실상 문화재로서
가치가 상당히 반감됐다”고 말합니다. 이어 노회찬은 “국보 번호대로
서열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1호가 갖는 상징성을 감안할 때
훈민정음해례본을 1호로 변경, 한글의 우수성과 존재를 세계에
알리자는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이틀 전인 5월 31일 노회찬은 문화재제자리찾기와 우리문화지킴이,
국어문화실천협의회 등 관련 시민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한 뒤
훈민정음해례본 국보 1호 지정을 위한 입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20대 국회 1호 청원입니다. (이하 청원소개 의견서,
청원서 전문)

청원소개 의견서

현재 국보 1호인 송례문(남대문)은 조선총독부가 1933년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에 근거해 5백 3건의 문화재를 최초지정하는데 이어 1962년 정부가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해 일괄 재지정하면서 「국보 1호」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송례문이 국보 1호로서 부적합하다는 문제제기가 20년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1996년에는 일제에 의해 지정된 국보 번호 체계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2005년에는 감사원의 문화재청을 대상으로 한 ‘문화재 지정과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앞두고 국보 1호 재지정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2008년 방화에 의해 송례문이 소실된 이후, 복원 과정이 부패와 비리로 얼룩져서 국민들이 크게 실망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문화재제자리찾기와 우리문화지킴이 등 시민단체에서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송례문을 국보 1호에서 해지하고 훈민정음 해례본을 국보 1호로 지정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여 12만 명에 가까운 국민들의 서명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한글은 우리 국민들 모두가 최고로 여기는 문화유산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창조성과 과학성을 인정받은 문자입니다. 한글 창제의 의미와 그 해설을 담은 훈민정음 해례본은 우리나라 국보 1호로 손색이 없는 문화유산입니다.

이제 1996년 이후 20년째 진행되고 있는 국보 1호 재지정 논의를 민의의 전당인 국회로 가져와야 합니다. 우리 문화를 당

당히 대표할 수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을 국보 1호로 지정하고자 하는 민의에 국회가 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훈민정음 해례본 국보 1호 지정에 관한 청원’을 소개합니다.

2016년 5월 31일

소개의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창원시 성산구)

청원서

훈민정음 국보 1호 지정을 청원합니다.

문화재제자리찾기와 우리문화지킴이 등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송례문을 국보 1호에서 해지하고 훈민정음 해례본을 국보 1호 지정을 위한 10만 서명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2달 만인 1월 118,603명이 서명에 참가, 훈민정음 국보 1호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보여주었습니다.

송례문이 국보 1호로 지정된 것은 1934년 조선 총독이 경성 남대문을 1호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송례문은 임진왜란 당시 가토오 기요마사가 한양으로 입성한 문이어서 국보 1호로 지정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합니다. 1996년 당시 정부는 대한민국 국보 1호를 조선 총독이 지정한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 국보 1호에서 해지하려고 노력했으나 문화재위원회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2005년에도 감사원이 국보 1호 해지를 권고했지만, 그때에도 문화재위원회

는 ‘혼란을 준다’는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2008년 방화에 의해 송례문이 소실된 뒤, 우리는 어이없이 국보를 잃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송례문 복원을 보면서 우리는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부실 대한민국에 또 한번 충격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국민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짝퉁 송례문은 대한민국 국보 1호로 자격 없습니다.

1996년 이후 국보 1호 송례문 논란은 20년째 논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는 감사원 권고 이후 10년이 경과한 시점까지도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선 총독이 지정한 국보 1호, 부실과 비리로 얼룩진 국보 1호 송례문을 해지하고, 거래의 얼이 서린 훈민정음 해례본을 국보 1호로 지정하기 위해 국회청원을 제출합니다. 우리는 더이상 조선 총독이 지정한 국보 1호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 지정한 국보 1호가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훈민정음은 우리 민족이 창조해낸 위대한 문자이며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2016. 5. 31

청원인 대표 해 문 (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

김상철 (우리문화지킴이 공동대표)

이대로 (국어문화실천협의회)

[참고] 훈민정음 해례본에 관하여

‘훈민정음’은 1446년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한글을 새로 창제해 반포했을 당시의 공식 명칭으로, 크게 ‘예의(例義)’와 ‘해례(解例)’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세종이 직접 지은 ‘예의’는 한글을 만든 이유와 한글의 사용법을 간략하게 설명한 글이고, 훈민정음을 설명한 한문해설서인 ‘해례’는 성삼문, 박팽년 등 한글을 만들었던 집현전 학사들이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만든 원리와 용법을 상세하게 설명한 글입니다.

‘훈민정음 해례본(訓民正音解例本)’은 해례와 예의가 모두 포함된 ‘훈민정음 원본’입니다. 전권 33장 1책의 목판본이며 국보 제70호로 지정되어 있고, 1997년 10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내용은 “國之語音異乎中國(나라말 소리가 중국과 달라)…”로 시작하는 세종의 어제 서문과 본문에 해당하는 예의(例義) 및 해례(解例), 그리고 정인지가 쓴 서(序)로 구성되어 있고 끝에는 ‘정통 11년(1446) 9월 상한’이라는 반포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1940년 안동에서 발견된 간송본(안동본)과 2008년 상주에서 발견된 상주본, 두 부가 존재합니다.

.....

청원서 접수에 이어, 국회 정론관에서 이대로 국어문화운동실천협의회 회장, 해문 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 박현수 한글과 컴퓨터 이사와 함께 한 기자회견을 통해 노회찬은 “현재 국보 1호인 송례문(남대문)은 조선총독부에 의해 1933년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에 근거해서 최초로 지정된데 이어 1962년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해 일괄 재지정 되면서 「국보 1호」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고 지적한 뒤, “한글은 우리 국민들 모두가 최고로 여기는 문화유산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창조성과 과학성을 인정받은 문자다. 한글 창제의 의미와 그 해설을 담은 훈민정음 해례본은 우리나라 국보

1호로 손색이 없는 문화유산”이라며, “12만 명의 국민들이 훈민정음 해례본의 국보 1호 지정에 서명했다고 한다. 이제 1996년 이후 20년째 진행되고 있는 국보 1호 재지정 논의를 민의의 전당인 국회로 가져와야 한다. 우리 문화를 당당히 대표할 수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을 국보 1호로 지정하고자 하는 민의에 국회가 답해야 한다. 국회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의 국보 1호 지정에 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 청원을 소개한다”고 말했습니다.

혜문 대표는 “국보 1호 변경에 관한 논란은 1996년 이후 20년째 지속되고 있다”며 “폭넓은 여론 수렴과 의견 청취를 통해서 (변경이) 이뤄질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청원을 주도적으로 준비한 혜문 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를 소개의원으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노회찬 의원과 함께 노력해서 조선왕조실록 환수 결정을 이룬지 10년이 되었다. 노회찬 의원께서는 한글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해 오신 정치인이다”고 소개한 뒤, “노회찬 의원은 2004년 국회의원 당선 이후 국회배지가 한글화 될 때까지 의원 배지를 착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법사위 활동을 통해 법안 한글화에도 기여하셨다. 특히, 2012년 8월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대표발의하여 지금과 같이 한글 국회배지가 있게 한 주역이다.

노회찬 의원은 그 누구보다 한글사랑에 앞장서신 분이어서 당연히 청원 소개의원이 되어주실 것을 요청했고, 노회찬 의원께서 흔쾌히 승낙하여 오늘 함께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 청원서 접수 이후 기자회견을 진행중인 노회찬 의원

주무부처인 문화재청은 교체비용이 많이 들고 행정력도 낭비된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당시 알려졌습니다.

노회찬은 이에 대해 “물론, 그런 부분도 주의 깊게 봐야 할 대목” 이라며 “만일 전면 교체하지 않고 1호인 승례문과 70호인 해례본 두 개의 위치를 바꾸면 비용은 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공청회 등 논의를 해서 민의를 수렴, 문화재청에 전달을 하거나 국회에서 결의를 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말한 것처럼 국보 1호를 승례문에서 훈민정음으로 교체하자는 주장은 지난 1996년부터 되풀이됐던 주장입니다.

1996년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는 문화재 지정번호제가 일제의 잔재라는

이유로 역사바로세우기 차원에서 국보 1호 교체가 추진됐습니다. 2005년에는 유홍준 당시 문화재청장도 국보 1호 교체를 추진했지만, 문화재위원회 등의 반대로 교체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송례문은 애초에 문화재 중 가장 중요하다는 이유로 ‘국보 1호’ 자리를 차지한 것이 아닙니다. 1933년 조선총독부는 ‘조선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령’을 발표하면서 일괄적으로 우리 문화재에 지정번호를 부여했습니다. 지금처럼 국보, 보물로 구분하지 않고 보물로만 지정했는데 당시 조선총독부가 지정한 보물 1호가 송례문(당시 남대문)이었습니다.

해방 후 1955년 이승만 정부는 일제 강점기 지정된 보물을 모두 국보로 승격시켰습니다. 박정희 군정 시기였던 1962년에 문화재보호법을 만들어 국보와 보물을 지정했는데, 명확한 기준 없이 원래 국보 1호였던 송례문을 그대로 국보 1호로 지정했습니다. 송례문은 2008년 방화 사건으로 옛 모습을 크게 잃었고, 복구 과정에서 부실 공사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과학적인 문자 창제의 원리가 기록돼 있어 세계적으로도 문화재로서 가치를 높이 평가 받고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훈민정음을 지지하는 여론이 압도적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1996년 문민정부 때 설문조사를 해보니 전문가 가운데 59%, 일반인 가운데 68%가 국보 1호를 바꾸는 데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훈민정음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라는 여론 조사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10월 문화재제자리찾기 등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19세 이상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64.2%가 “송례문과 훈민정음 중

훈민정음이 국보 1호가 돼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조사에서 훈민정음 대신 승례문을 꼽은 응답자는 20%에 불과했습니다.

참고로 문화재에 지정번호를 붙여 관리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우리와 북한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제도를 물려받은 일본도 관리번호만
있을 뿐 우리처럼 문화재 표지판에 번호를 적어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노혜채를
떠나보낸 뒤

'2019 우리말 사랑꾼' 선정

〈읽기 쉬운 내 친구 헌법〉 제작·배포,
그리고 함맞비

노회찬을 떠나보낸 뒤

한글을, 아니 국민을 향한 마음이 담겨있기에 특별하고 소중했던 그의 행보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그를 추억하고, 소중했던 가치를 이어갑니다.

'2019 우리말 사랑꾼' 선정

2019년 10월 9일 573돌 한글날을 맞아 한글문화연대
(대표 이견범)는 '2019 우리말 사랑꾼'으로 고(故) 국회의원 노회찬,
피치마켓 대표 함의영, 국방부장관 정경두,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
방탄소년단 팬클럽 아미(ARMY)를 선정했습니다.

한글문화연대는 2000년부터 우리말글을 아름답게 가꾸고
우리 말글살이의 잘못된 점을 바꾸어, 세계화의 거센 물결에서
잃어가는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찾고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독창적인 한글문화를 일구고자 활동하는 시민단체입니다.

노회찬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 한글문화연대는 이렇게 밝힙니다.

“노회찬 님은 오랜 세월 한자 ‘국(國)’으로 표시하던 국회의원
보람(배지)을 한글로 바꾸는 일에 2004년부터 꾸준히 애썼다.
한글날을 국경일로 승격시키는 법안도 발의했다.

2018년에는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할 때 ‘헌법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만들어야 한다’는 한글 단체 활동에도 힘을 보탰다. 평소에 정치 용어와

법을 용어를 쉬운 말로 사용하고, 한글로 적자는 데에 앞장선 공을
기려 우리말 사랑꾼으로 뽑았다.”

〈읽기 쉬운 내 친구 헌법〉 제작·배포, 그리고 〈함맞비〉

2019년 10월 9일 오전 573돌 한글날을 맞아 노회찬재단은
고(故) 노회찬 의원의 뜻을 이어 한글문화연대와 함께 광화문
광장에서 <읽기 쉬운 내 친구 헌법> 책나눔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의 헌법 문장을 알기 쉽고 우리말답게 다듬은
<읽기 쉬운 내 친구 헌법>은, ‘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 국민운동본부’에서
국어학자 리의도 교수를 비롯하여 많은 이가 머리를 맞대고
이룬 성과이자, “누구보다 우리말과 한글 사랑이 특별했던 정치인”
이었던 노회찬 의원의 바람이 담긴 결과이기도 합니다.

**“국회의원 배지를 한글로 만든 사람, 국회의원 선서문을 한글로
선서하게 만든 사람, 민초를 사랑했기에 한글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
노회찬을 떠올리는 아침.”** — 같은 날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페이스북에 노회찬의 한글 사랑을 추억하며 올린 글입니다.

더불어 573돌 한글날을 맞아 국내에서 처음으로
‘한글 끝판 한마당(한글 해커톤)’ 대회가 열립니다.

한국어인공지능학회가 주관하고 서울시가 후원한 이번 한글 해커톤은
‘서울, 한글로 꽃피다’ 행사의 일환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서울 사무소 대강당에서 진행됐습니다. 이 대회에서 ‘다른생각상’을

받은 <함께 맞는비(이하 함맞비)> 팀은 노회찬재단의 역사문화탐방 동호회 회원들로 구성된 팀입니다. <함맞비> 팀은 텀블러란 용어에 대한 좀 더 쉬운 우리말 표현인 ‘들잔’이란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해 지도록 용어를 생활화하며, 한글에 대한 아름다움을 이해하도록 한다는 생각에서 시작했습니다.

들잔(텀블러)을 활용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없애기 위한 사업모델을 만들고 지역생활 협동조합 등에 기존 플라스틱 물병이 아닌 들잔을 통한 임대 사업을 하는 개념으로 사업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수상 소감으로 “한글에 대한 정신을 이어받으면서 최근 이슈가 되는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로 인한 환경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모델 등 구체적인 실천계획은 탄탄한 팀워크가 뒷받침됐다”며, “우리는 노회찬 정신을 이어받아 수평적 소통을 하고 있다. 모두 나이를 떠나서 예명(닉네임)으로 부른다”고 말했습니다.



노회찬체가 만들여지기까지

인터뷰

박윤정 (박윤정&타이포랩 대표)

이성재 (노회찬재단 홍보기획국장)

노회찬체가 만들어지기까지

서류 속에 남아있던 그의 흔적이, "노회찬체"로 다시 태어나기까지.
반 년이 넘는 개발 기간, 진심으로 함께 해주신 박윤정 대표님을 모시고
노회찬체 개발 과정과 의원님에 대한 애뜻한 기억을 함께 나누어 봅니다.

글꼴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윤명조’, ‘윤고딕’
시리즈부터, 공공 서체 열풍의 시발점이 된 ‘서울서체(남산·한강체)’와
‘경기천년체’까지. 상업적인 영역과 공공분야에서 모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이곳이 바로 “노회찬체”를 제작한 <박윤정&타이포랩>입니다.

인터뷰는 9월 중순을 앞둔 어느 날, 서울 종로구 연건동에 위치한
<박윤정&타이포랩> 작업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간단히 스튜디오 소개를 해주신다면

1992년 서체 개발업체 ‘윤디자인’을 시작으로, 지난 2015년 독립 후
타이포랩을 이끌고 있는 박윤정이라고 합니다. 윤명조·고딕과 같은 일반
서체와 더불어 천상병, 윤동주, 김훈, 신영복 선생님의 육필을 디지털화
하는 ‘작가 서체’ 시리즈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최근 작업으로는
(주)에듀윌 전용서체가 있네요.



**디자이너로서 의미 있게, 또 바쁘게 살아오신 것 같은데,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기억하는 '노회찬'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뒤늦게 고백하건대,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좋아했던, 몇 안 되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겉으로 티를 낸 적은 없었지만, 투표가 있다 하면 언제나 의원님과 의원님이 계신 정당을 지지했던 조용한 팬이었어요.

의원님께서 추구했던 정신 때문인지, 세계는 희망과 밝은 미래의
아이콘과 같은 존재였어요. 아마 ‘경쟁’ 대신 공생과 상생,
더불어 사는 삶을 강조해오신 부분이 제 마음에 깊게 남았나 봅니다.

무엇보다 노동운동부터 시작해서 척박한 삶을 살아오셨지만
항상 밝게 미소 지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떠오릅니다.

‘노회찬체’ 프로젝트를 맡게 된 계기가 있다면

제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이 한 분 계셨는데,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다 의원님 이야기가 불쑥 나오게 됐어요. 너무 좋아했다는 이야기,
마지막 순간이 너무 안타까워 한참이나 울었다는 이야기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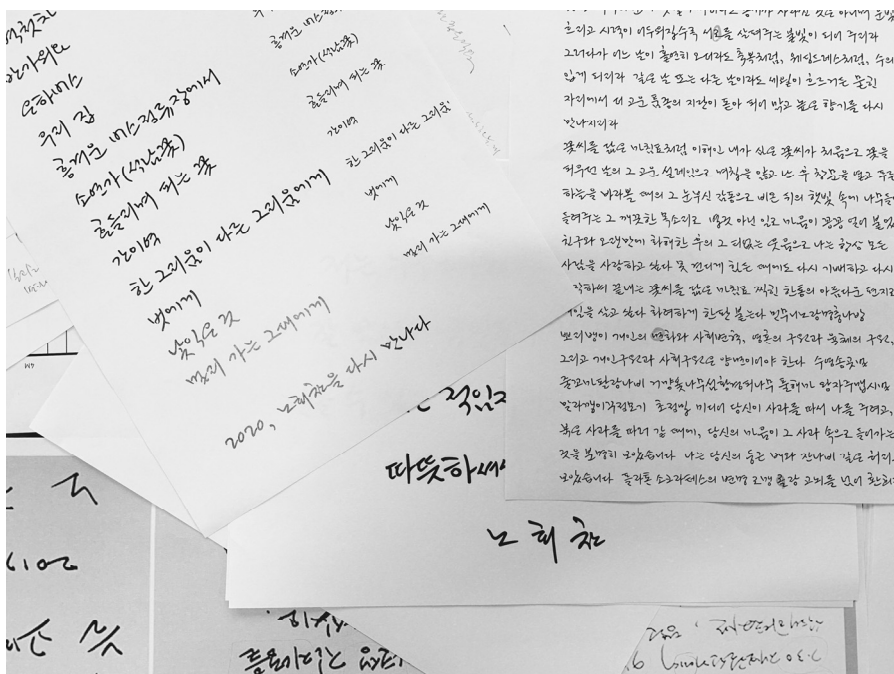
그런데 알고 보니 지인이셨던 김창희 국장님께서 의원님의
고교 동창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노회찬체’도 제작이 가능하겠냐고
여쭙보셨고, (사실) 무조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후 재단에 이 내용이 전달이 되고, 자연스럽게 노회찬에
제작이 시작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때 참 여러 감정이 들었는데요. 노회찬체를 내 손으로
만들게 되었구나 하는 기쁨과 함께, ‘아 내가 이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김창희 국장님과 함께 의원님을 가까이서 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동시에 느껴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미팅이나 PT를 위해 재단에 방문했던 길이, 그렇게 떨리고
기쁘고 반갑고.. 일을 하러 오는 것 같지가 않았어요.

(편집자 주) 김창희 국장

전 동아일보 기자, 프레시안 편집국장, 현 노회찬평전 기획위원장



일반적인 서체 개발과 손글씨를 만들 때의 차이가 있다면

손글씨는 자기만의 필력감, 그리고 오리지널리티를 살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면, 일반 폰트는 개발하는 디자이너가 추구하는 컨셉이 중요해요.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손글씨는 아날로그 기반이라 감성적인 부분이 녹아날 여지 크기도 하고요.

서체 제작 과정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들려주신다면

손글씨 개발 같은 경우 우선 자료 수집부터 시작합니다. 모아주신 자료를 고해상도 스캔받아 수작업으로 글자 외곽선 추출하고 폰트를 개발하는 프로그램에서 2차로 선을 매끈하게 다듬는 과정을 거치게 되지요. 이 과정에서 필기도구에 따른 질감의 차이도 고려하고,

주요 단어나 문장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가면서 시안을 제안합니다.
이후 점점 글자 수를 늘려가면서 우리가 ‘완성형’ 한글이라 불리는
2350자를 마무리 짓고, 실제 긴 문장에 적용해보는 조판 테스트를 거쳐
최종적으로 개발이 마무리됩니다.

**흔히 손글씨에는 그 사람의 성격이 묻어난다는 말이 있는데,
의원님의 손글씨를 지난 반 년 동안 누구보다 가까이서 함께하신 결과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의원님의 손글씨를 가만히 살펴보면, 한 가지 스타일의 글자가
아니었어요. 낱자의 형태도 다양하고...

그래서 제가 느낌 감정은 자유분방함, 호탕함, 다정다감, 따뜻함,
온기가 배어 있는 필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특히 어떤 글자에서 그런 감정을 받으셨는지

‘ㄹ’, ‘ㄱ’ 에서의 자유분방함,
‘ㅏ’, ‘ㅑ’ 와 같은 부분 길게 쪽쪽 내 뺀 호탕함
그리고 전체적인 톤이 다정다감하게 느껴졌어요.

이건 제가 애정이 커서 더 그런 것일 수도 있겠네요. (웃음)

살아생전에 못 뵈었던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게 참 그렇게 되었으니까.. 참 그게 그렇죠..
그게 그런 거 같아요.



**마지막으로 올해 한글날, '노회찬체'를 만나게 될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노회찬 의원님께서 남녀노소 구분 없이 정말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으셨던 분인 만큼, 노회찬체도 많은 분들께서 다양하게,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손글씨’라는 특성상,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필체의 느낌을 왜곡하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서체가 만들어진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아껴 주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도종환 신임 문체부 장관과의 만남

의례적인 신임 장관의 내방과 원내대표의 덕담 속에서도
감출 수 없었던 노회찬의 한글사랑.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봅니다.

2017년 6월 22일 오후 1시 30분 도종환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의당을 내방,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와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 가운데 노회찬은 한글의 현대적 발전 관련해 도 장관에게
이렇게 주문합니다.

노회찬 원내대표 제가 과거에 다른 나라에서 문화인 출신들이
장관직 같은 것을 맡을 때 굉장히 부러워했고 ‘우리는 언제 저렇게
수준 높은 나라가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장관이 되신 것을 더욱 더 축하드립니다. 자부심을 갖게 하는
인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도종환 장관 지금 저희 문체부가 블랙리스트 때문에 굉장히
조사도 많이 받고 법정에도 들어가고 하면서 힘들고, 만 명 가까운
예술인들이 불이익을 받는 등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예술인들을 추슬러야 하고, 또 문체부 내에 책임을 물을 건 묻고
앞으로 진상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사드로 인해서
피해 입은 관광업계도 살려야 되고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노회찬 원내대표 위낙에 분야가 넓지 않습니까. 문화예술에, 체육에, 관광까지 말고 계신 그 부처의 주요업무 중에 우리나라 어문정책도 소관하고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특히나 언어를 가장 고차원적으로 다루는 시인이시기도 하고요. 아마추어지만 저도 그 부분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한글을 위대하다고만 얘기하고 마치 조상의 유산처럼만 간직하려고 하지 살아있는 언어 수단으로서 말과 글을 발전시키는 것에 대한 관점이나 사회적인 투자와 같은 것들이 좀 더 중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국립국어원 역할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 있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17대 국회 때 국어 기본법도 통과됐고 어문정책의 기본으로 쓰였는데 단순히 자부심의 대상으로서의 한글이 아니라, 더 잘 아시겠지만 글이라는 게 계속 투자를 하고 많이 사용해야 말이 더 생겨나고 발달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는 불어에 없는 외래어가 생길 때 국가기관에서 그에 대한 불어를 확정해서 그 말에 법적인 위상을 주어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국립국어원이 최근에 와서는 그 일을 좀 하고 있지만 사실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것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글을 현대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 그것을 관행화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좀 더 나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마 국민들도 한글을 발전시키는 것이라면 많이 동의할 것이고요. 편협한 한글 전용주의나 외래어와 외국어를 무시하고 쓰자는 건 아니니까요. 과거 정권에서 문화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표방해 왔고, 특히나 지난 정부 같은 경우 전시적인 사업만 했었다면 현 정부에서는 실질적인 문화 경쟁력을 키우길 바랍니다.

우리한테는 그렇게 할 만한 문화유산이나 사람들 재능 등 여건이 갖춰져 있고, 그것이 정책적으로 뒷받침되어 과거와 다른 진전을 하면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만족도하고 자부심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문정책에 대해서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정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특히나 도종환 장관께서 그 일을 하신다면 더욱 더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고요.

한글을 더 빛내고 강하게 만든 장관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뒷받침 하겠습니다.

도종환 장관 함께 할 일이 있으면 상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노회찬 한글활동 일지

‘한글국회 만들기’등을 위해 노회찬이 노력한 10여 년의 시간들.
그 과정을 일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04.05.30 국회배지 한글화 때까지 의원배지 착용하지 않겠다고 선언
- 2004.06.30 한글문화연대 한글배지 만들어 노회찬 의원에게 전달
- 2004.07.01 국회의원에게 한글배지 배부하며 한글국회 운동 전개
- 2004.07.15 한글날을 국경일로 승격시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 공동발의
- 2005.06.21 ‘한글문화세계화를 위한 의원 모임’ 활동
- 2005.12.08 한글날 국경일 지정 법안 통과
- 2006.01.19 ‘한글을 빛낸 큰별’ 선정
- 2012.07.02 한자로 된 ‘국회의원 선서문’ 한글화 요청 공개서한
국회의장에게 전달
- 2012.07.11 ‘국회의원 선서문’ 전면 한글화 시행
헌정 사상 첫 한글로 된 선서문 통합진보당 서기호 의원
(이후 진보정의당으로 당적 변경) 낭독
- 2012.07.30 한글관련단체 주요 대표자와 국회의장과의 간담회 진행
(국회기 등 전면적인 한글화추진 청원서 전달)
- 2012.08.03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대표 발의
- 2012.09.23 한글날 공휴일로 재지정
- 2012.10.05 ‘우리말 으뜸 사랑꾼’ 선정
- 2012.10.09 한글날 기념 제10회 전국문해한마당축제
‘늦깎이 청춘들’의 글쓰기 대회 및 시화전 개최(국회의원 동산)
- 2014.05.02 국회기, 국회배지 등 한글화 일부개정규칙안 국회본회의 통과
- 2014.10.09. 한글학회, ‘한글나라 큰별’ 선정
- 2016.05.31 훈민정음해례본 국보 1호 지정을 위한 입법 청원서 제출
(20대 국회 1호 청원)

부록. 클라우드 펀딩 후원자 목록

소중한 기억의 조각들, 점으로 흩어져있던 그의 흔적을, 이렇게 하나의 선으로 이어낼 수 있었던 것. 모두 여러분의 참여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jinze****	김경희	김연강	김하늬
MJ	김광화	김연주	김현숙
강모	김용빈	김영복	김현중
강선경	김원산	김요한	김형모
강선희	김나경	나무	김혜련
강영선	김동규	나미라	김희상
경주은선	김동길	남궁계숙	남민우
고문석	김동아	김유리	남선헤
고봉수	김명중	김유진	노현석
고용출	김미경	김윤희	노현정
구인서	김보성	김은자	노호태
구현정	김상신	김웅주	로미
권병덕	김상운	김재석	류성희
권상미	김성문	김종완	류웅환
권신윤	김성용	김주경	류혜정
권윤경	김성철	김준석	만주별판
권은숙	김수연	김준석	말로
권정숙	김승욱	김지애	문보람
권정현	김승원	김지형	박길호
권철	김승현	김진만	박동현
김가영	김시원	김철희	박명숙
김경태	김애선	김태권	박민희

박석영	서정민	유희수	이호영
박세권	선훈주	윤동영	이희경
박세영	손은경	윤원상	임동준
박세원	송원국	윤철휘	임명희
박수현	송은정	윤희영	임선주
박순제	신국균	이기중	임승우
박승현	신미경	이기훈	임은경
박영선	신슬기	이동영	임종민
박윤정	신종민	이동익	임종원
박은주	신지영	이상섭	임진희
박정은	신희주	이상희	임필녀
박종호	심규원	이세동	임현진
박준형	심미정	이승규	장규진
박진희	심주영	이승렬	장상윤
박찬연	안강희	이승민	장상화
박청화	양대희	이승훈	장성용
박태진	양호영	이연주	장윤구
박하은	엄성운	이예진	장윤선
방선일	오병훈	이우성	장윤정
배윤주	오승섭	이의종	장인선
배준영	오영진	이재혁	장지인
백승준	오정아	이정희	장형진
백인심	오준석	이지연	전기옥
변정운	오진아	이지은	전영신
부영이	오현호	이진우	전영신
빛나는J	우종령	이채민	정광열
사공진	원지희	이태영	정금정
서경원	유도언	이한솔	정상인
서동욱	유봉현	이현규	정설희
서영실	유지우	이현수	정소영

정우석
정우진
정재연
정재장
정제문
정지현
정진우
정현수
정혜선
조길래
조동진
조영규
조영희
조용권
주세연
주진태
주하영
지상규
지은혜
차미정
차지유
최경호
최국태
최미주
최봉재
최석원
최승돈
최유상
최유정
최윤희

최정식
최정은
최준용
최지혜
탁성환
한선희
한성수
한영숙
한유미
함은혜
허수희
허준영
허진균
호운
홍남주
홍승혁
홍윤표
홍준용
홍진선
황미선
황복연
황시영
황정하
황지현

편당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노회찬체 다운로드

<http://hcroh.org/notice/218>

함께 꿈을 꾸는 사람이
방망이면 그 꿈은 현실이 됩니다.

노회찬, 「우리들의 겨울은 따뜻했다-다시, 꿈꾸기 위하여」,
<진보의 재탄생> (꾸리에, 2010)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